

광주FC, 홈 개막전서 2연승 노린다

5일 FC서울과 2라운드 맞대결 1R 수원삼성전 승리로 자신감 ↑ 이정호 “준비 잘해 승리 선사”



프로축구 광주FC가 K리그1 홈개막전에서 2연승 도전에 나선다. 지난 라운드 원정 개막전에서 수원 삼성을 꺾고 화려하게 1부리그 복귀 신고식을 한 광주 선수단은 기세를 이어 안방에서 FC서울을 잡고 홈팬들에게 2연승의 기쁨을 선사하겠다는 각오다.

광주FC는 오는 5일 오후 4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FC서울과 하나원큐 K리그1 2023 2라운드 홈개막전을 치른다.

지난 시즌 압도적인 성적으로 K리그2 우승을 차지하며 1년 만에 K리그1에 돌아온 광주의 위엄은 1부리그 개막전에서도 이어졌다.

광주는 지난달 25일 수원 삼성과의 1라운드 원정에서 1-0으로 이겼다. 지난 시



광주FC는 오는 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FC서울과 하나원큐 K리그1 2023 2라운드 홈개막전에서 2연승에 도전한다. 사진은 광주 선수단이 지난달 25일 수원 삼성 원정에서 1-0 승리 후 원정 팬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광주FC 제공**

즌보다 두터워진 선수층으로 활발해진 공격과 안정된 중원, 수비의 조화로 올시즌을 기대케 했다.

특히 영입 선수들의 맹활약이 돋보였다. 네덜란드 출신 티모는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무실점 승리에 기여했다.

토마스는 전방에서 산드로와 호흡을 맞

추며 공격은 물론 적극적인 수비로 상대 역습을 차단하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아사시는 후반 20분 교체 투입돼 한번의 슈팅 찬스를 골로 연결시키는 결정력을 선보였다.

여기에 광주 유스 출신 '광탄소년단' 엄지성, 정호연, 이희균은 공격과 수비 진영

을 부지런히 오가며 날카로운 패스와 드리블로 수원 삼성을 괴롭혔다.

또 골키퍼 김경민은 수원 삼성의 3차례 위협적인 슈팅을 포함 8차례 유효슈팅을 원천 봉쇄하며 팀 승리를 지켰다.

이번 홈 개막전 상대는 리그 전통 강호 FC서울이다.

서울은 기성용, 팔로세비치, 오스마르, 일류첸코 등 기존 선수를 비롯해 임상협, 황의조, 최철원 등이 합류하며 올시즌 강력한 스쿼드를 갖췄다.

인천유나이티드와의 1라운드에서 2-1 승리를 거둬 상승 분위기에 더해 통산 전적도 13승 4무 2패로 광주에 강하다.

광주로선 버거운 상대다. 그러나 광주는 홈개막전에서 팬들을 마주하는 만큼 물러서지 않고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광주 선수단은 지난 2021시즌 10월 서울과의 홈맞대결에서 3-4 역전패를 당한 뼈아픈 기억이 있기에 이번 홈 개막전 승리로 설욕하고 2연승으로 상승 분위기를 더 끌어올린다는 각오다.

이번 서울전에선 에이스 엄지성의 활약

이 기대된다. 엄지성은 지난 1라운드 수원 삼성전에서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빠른 스피드와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로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다. 수원 삼성 수비진들은 엄지성이 불을 잡으면 2~3명씩 집중 수비를 펼치며 반칙으로 엄지성의 움직임을 저지했다. 엄지성이 이번 서울전에서도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 서울 수비수들을 유인하면서 동료 선수들에게 득점 찬스를 열어주는 역할을 해준다면 서울의 골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티모를 중심으로 한 포백 수비진들이 더욱 견고한 수비를 펼치고 활동량이 많은 이순민과 정호연이 중원을 압박하면서 서울의 역습을 차단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호 광주 감독은 “지난 수원 삼성전 승리로 우리 선수들이 큰 자신감을 갖게 됐다. 지난 경기에선 두달 동안 준비한 전술이 100% 펼쳐지지 못했다. 지난 경기 과정을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울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ilnbo.com

‘K리그 명예의 전당’ 선수 부문 팬 투표 시작

각 10년별로 1명씩 총 4명 선정

프로축구 ‘K리그 명예의 전당’에 오를 선수들을 뽑는 팬 투표가 오는 10일까지 진행된다.

2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올해 프로축구 출범 40주년을 기념해 신설한 ‘K리그 명예의 전당’의 선수부문 팬 투표가 지난 1일 시작됐다.

K리그 명예의 전당은 선수(STARS), 지도자(LEADERS), 공헌자(HONORS)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매 2년마다 현역자를 선정한다.

시행 첫해인 올해 선수 부문은 프로축구 출범 40주년의 의미를 담아 역대 최고의 선수들을 각 10년의 세대별로 1명씩, 총 4명을 뽑는다.

K리그 명예의 전당 선정위원회는 입후보 기본조건을 충족한 200여명의 은퇴 선수들 중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후보

60명을 선정했다. 후보 60명은 은퇴시점, 데뷔시점, 나이, 전성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개 세대별 각 15명씩으로 구분됐다.

합산점수 중 25%의 비율을 차지하는 팬 투표는 K리그 공식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투표기간은 오는 10일까지로, 매일 1회 참여가능하다.

투표는 각 세대별로 2명씩 모두 8명의 선수에게 투표하면 된다. 팬 투표 페이지에서는 후보에 오른 60명의 세부 기록도 열람할 수 있다.

득표 현황은 8일까지 공개되고, 9일부터 10일까지는 비공개 투표로 전환된다. 최종 현역자는 팬 투표를 포함해 선정위원회 자체 투표, 구단 대표자 투표, 미디어 투표의 각 투표점수를 합산해 세대별로 가장 점수가 높은 1명씩으로 정해진다. 최종 선정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된다.

최동환 기자



‘손흥민 폴타임’ 토트넘, FA컵 16강 탈락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1일(현지시간) 영국 셰필드의 브래몰 레인에서 열린 2022-23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16강전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중 공을 다루고 있다. 손흥민은 폴타임을 소화했으나 침묵했고 토트넘은 2부 리그 팀인 셰필드에 0-1로 패하며 8강 진출에 실패했다. **AP/뉴시스**

‘피겨 기대주’ 신지아, 주니어 쇼트 2위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기대주’ 신지아(15·영동중·사진)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쇼트 프로그램에서 2위에 오르며 메달 전망을 밝혔다.

신지아는 2일(한국시간)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2023 ISU 피겨 세계주니어 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39.99점, 예술점수(PCS) 31.20점으로 합계 71.19점을 기록, 2위에 올랐다.

지난해 9월 ISU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3차대회서 세운 자신의 쇼트 프로그램 최고점인 70.41점을 넘는 개인 최고점이 다.

신지아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여자 싱글 은메달을 목에 걸어 한국 선수로는 김연아(2005년 은메달·2006년 금메달) 이



후 16년 만에 포디움에 올랐다.

두 대회 연속 메달에 도전하는 신지아는 김연아 이후 17년 만에 주니어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노린다. 쇼트 프로그램 1위는 일본의 시마다 마오(71.78점)로 0.59점 차다.

신지아는 경기 후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통해 “쇼트프로그램에서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 자신감 있게 하지는 마음으로 임했는데,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된 것 같아서 뿌듯하다. 이번 시즌 출전했던 대회 중 가장 좋은 점수를 얻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상위 24명이 나서는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은 한국시간으로 4일 오전 9시45분에 열린다. **뉴시스**

‘메이저리거 키스톤 콤비’ 김하성-에드먼, WBC 대표팀 합류

유격수·2루수 주전 낙점

‘이강철호’에 메이저리거 키스톤 콤비가 된다.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대표팀에서 유격수와 2루수는 각각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토미 에드먼(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책임진다.

메이저리거를 누비고 있는 이들은 한국 대표팀 내야에서 호흡을 맞추게 된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국제 무대에서 현역 메이저리거로 키스톤 콤비를 구성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수비만 놓고 보면 어디에도 밀리지 않을 조합이다. 2019년 메이저리거에 입성한 에드먼은



김하성



토미 에드먼

2021년 최고 수비수에게 돌아가는 골든 글러브를 수상했다. 2021시즌 빅리그에 데뷔한 김하성도 탄탄한 수비 능력으로 일찌감치 인정 받았다. 지난해는 아시아 출신 유격수 최초로 골든글러브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이들은 타선에서도 주요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

에드먼은 메이저리거 통산 459경기에서 타율 0.269, 40홈런 175타점 79도루를 기록했다. 김하성은 빅리그 2년차였던 지난해 150경기서 타율 0.251, 11홈런 59타점 12도루를 작성했다.

대표팀은 지난달 15일부터 미국 애리조나 투손에서 합동 훈련을 펼쳤지만 김하성과 에드먼은 소속팀의 스프링캠프를 소화하다 지난 1일 입국했다.

대표팀과 손발을 맞출 시간은 짧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평가다. 김하성과 에드먼은 메이저리거 시범경기로 컨디션도 끌어올렸다.

김하성과 에드먼이 합류하며 마침내 ‘완전체’를 이룬 대표팀은 2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치르는 훈련서 첫 선을 보인다. **뉴시스**